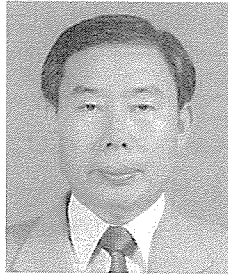


창립 40돌 ...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 한국작물학회

한국작물학회(The Korean Society of Crop Science)는 작물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그 지식을 널리 보급시켜 우리나라 농업 및 농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2년 10월 7일 한국농학회로부터 분화 독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학회를 모 학회로 하여 독립 발전된 학회로는 '한국육종학회(1969년)', '한국잡초학회(1981년)',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1988년)', '한국약용작물학회(1992년)' 등이 있다.



金 奭 東
〈한국작물학회 회장/전 작물시험장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역인 학술활동에 있어서도 매년 봄, 가을로 총회를 통하여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전문학회지의 발행에 있어서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1998년부터는 영문학회지(Korean Journal of Crop Science)를 연 4회, 한글학회지(한국작물학회지) 2회, 도합 6회의 학술지를 발행하여 관련 산업,

학술 및 회원 발전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또한 학회지의 학술적 가치와 그 수준에 있어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는 「한국작물학회지(국·영문포함)」는 학술진흥재단의 등재 후보 학술지 평가에서 2000년, 2001년 모두 우수한 점수로 통과되었으며, 2002년 최종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SCI(Science Citation Index)에의 등재를 추진 중에 있다.

2008년의 '세계작물학회' 서울 유치

그리고 전문분과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도 1988년에 발족한 품질분과위원회는 학술활동을 활발히 해오고 있는데 연 1회의 학술발표회와 아울러 지금까지 전문연구지 8집을 발간하였고 금년도에 9집 발간을 인쇄 중에 있다.

한편 국내의 학술활동에 있어서도 관련학회와 활발히 교류해오고 있는데, 우선 국내적으로는 봄, 가을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함에 있어, 대체로 발표회 중 1회는 관련되는 학회와 공동발표회 또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왔다.

예를 들자면 1999년 가을학회에서는 한국육종학

1962년 한국농학회사 분리

한편 한국작물학회가 발족할 당시에는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해마다 보릿고개의 참상에 허덕이는 상황이었으나 1970년대 통일벼 품종의 개발보급으로 쌀 자급과 함께 녹색혁명을 이룩하였고, 더욱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벼 재배 면적이 크게 감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5년 연속 쌀 자급량 이상을 생산하여 정부가 스스로 감산정책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와 같은 결과를 낳기까지는 우리 학회의 역할이 그 저변을 확고히 감당해 왔다.

또한 한국작물학회는 그 동안 담당해온 역할로 보거나 학회의 역사, 회원 수 및 학회의 비중으로 볼 때 한국농업과학분야 44 학회 중 가장 중심학회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그 역할을 다해 왔다고 우리 회원들은 자부하고 있다.

대부분의 관련학회도 그러하였지만 우리 학회는 창립 당시 1백여명의 회원으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회원이 1천명이 넘고 있으며, 학술단체의 가장

1962년 한국농학회로부터 분리되어 새로 발족한 한국작물학회는 회원이 1천명이 넘는 대규모로 발전해 왔으며 학술지 발간·학술발표회 등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 및 농학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현재는 2008년에 개최될 '제5차 세계작물학회'를 서울로 유치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진행중이다.



한국작물학회 30주년 기념 및 제1회 아시아작물연합회 국제심포지엄이 1992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되었다.

회와 한국토양비료학회, 그리고 2000년 봄 학회에서는 한국육종학회, 가을학회에서는 농림기상학회, 2002년 봄 학회에서는 한국육종학회, 한국약용작물학회와 공동 개최함에 그때 그때 시대 이슈에 따라 주제를 정하여 집중적이며 종합적으로 시대에 요구에 접근함으로써 상황에 따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타개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여 회원과 관련 산업계의 요구에 충족해오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1992년에는 우리 학회 30주년 기념행사를 겸하여 '제1차 아시아작물학회'를 서울로 유치, 성대히 개최하여 우리 학회의 이미지를 아시아에 널리 인식시켰으며, 2000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세계작물학회 제3차 학술대회'에 우리 회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2008년 '제5차 세계작물학회'를 우리나라로 유치하는 쾌거를 올린 바 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 회원의 학회 및 학술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학회 시작과 더불어 학회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에게 수여하는 공로상과 연구활동이 뛰어난 회원에게 수여하는 학술상(연구상)을 매년 약간명씩 시상해 오고 있으며, 1986년부터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회원에게는 학회가 학위취득 기념패를 증정함으로써 회원들을 결속시키고 격려해 오고 있다.

이제 우리 한국작물학회는 2008년 주최할 '제5차 세계작물학회'를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 보다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회원들 뿐만 아니라 산·학·연·관 등 관련 분야의 헌신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아 가장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 것을 약속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작물학회가 세계 수준의 학회로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㉟